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 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宗報

제53호 2007. 9. 13 (목)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종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第22期 夏季大學生 敎養講座

중앙종친회는 2007년 정해년 대학생 하계 교양강좌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동원재 가락당에서 종식 중앙종친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100여명의 원로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강하였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각 문중 및 파종회에서 추천받아 입소한 대학생들은 지도 교수인 승연(전 한밭대학교 대학원장) 종친의 인솔하에 일사분란하게 입소식을 마치고 본 강의가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보학을 배우고 향우 종사와 국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수들과 열띤 토론을 통하여 살아 숨쉬는 공부를 하였다.

사례를 몸소 익힘으로써 명문화벌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갖게 되었고, 영원불멸의 충과 효의 문화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터득케 하였다.

순천김문의 지조와 절개는 이미 역사학자들이 서술한 바와 같이 도도히 흘러내려오고 있으며 이 찬란한 정신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자자손손 물려주는 순김의 후예가 될 것을 다짐하는 초롱초롱한 눈매 속에 가문의 앞 날에 서광을 보면서 강의를 마쳤다.

노후에도 불구하고 열강하는 교수들의 강의에 주암골 동원재는 더욱 뜨거웠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강의를 지켜보던 원로 종친들은 박수로 격려하고 학생들을 위하여 성금을 아끼지 않았다.

성금을 주신 종친

종식(중앙종친회 회장) 1,000,000원, 상용(중앙종친회 상임부회장) 500,000원, 봉환(중앙종친회 간사) 300,000원, 창연(중앙종친회 고문) 1,000,000원, 김광휘(우보건설 상무이사) 300,000원, 경남(중앙종친회 감사) 50,000원, 도균(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200,000원, 수연(중앙종친회 부회장) 300,000원, 안동종친회 100,000원, 문경종친회 100,000원, 김종원(안동시 풍천면 내담1리) 40,000원, 김종원(안동시 풍천면 기산1리) 30,000원, 김봉배(부산종친회) 100,000원, 김상윤(해남군 황산면 남이리) 50,000원, 인섭(부산종친회 회장) 100,000원, 보연(경기도의회 의원) 100,000원, 방춘서원 500,000원

▼ 石湖 김동영 교수

公告

中央宗親會 第18期 定期總會 開催公告

會則 第12條 1項에 依據 2007年度 定期總會를 下記와 같이 開催함을 公告함

- 下 記 -

1. 日 時 : 2007年 11月 9日 17時
2. 場 所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同原齋 (가락당회관)
3. 參席範圍 : 中央宗親會 任員 및 代議員
4. 議 案 : 1) 義務報告
   2) 第17期 歲入歲出 決算審議(案)
   3) 第18期 豫算審議(案)
   4) 任員 選出件
   5) 기타사항

◈ 地域 宗親會 會長과 派宗會 會長은 代議員들에게 연락하여 全員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날 11월 10일은 始祖 秋享祭日입니다.

2007년 9월 1일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會長 金 鍾 植

415주기 팔천고혼 위령제 및 호국영령추모 국태민안 기원 행사에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종식 회장 헌작

2007년 6월 13일 충주문화원과 충주사암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충주시, 육군 제3105부대, 충북도불협, 충주교육청, 충주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제415주기 팔천고혼 위령제 및 호국영령 추모 국태민안 기원 행사를 충주시 탄금대 야외음악당에서 충주시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고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충주농고 악대의 주악에 맞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충복 시장의 추모사, 정우택 충북지사, 황병주 시의회의장, 이시종 국회의원의 추념사에 이어 시인 임병규의 추모시 헌송에 이어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김종식 회장을 비롯한 헌작에 이어 시의원들의 헌화분향, 3105부대의 조총발사와 팔천고혼에 대한 묵념으로 1부행사를 폐회하고, 2부행사는 충주사암연합회(회장 대원)가 주관하여 삼귀의례, 찬불가, 관욕, 독경, 사암연합회 회자의 인사말에 이어 청법가, 법어(법주사 회주 혜정스님), 국태민안 기원 발원문, 천도재, 사홍서원, 산화가를 끝으로 행사를 폐회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시민들은 평산신씨 신립장군과 순천김씨 김여물 장군이 팔천장졸들을 이끌고 배수진이라는 세계 전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목숨을 건 최후의 일전을 한 이곳을 호국의 성지로 길이 빛낼 것을 다짐하였으며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여물 장군의 후손인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종식 회장을 비롯한 종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잘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군가 뒤에서 나를 욕한다면 당신은 앞에서 그를 칭찬해야만 한다는 글귀를 보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누가 나를 욕할 때 같이 내 놓고 욕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을 하는 사람 앞에서 칭찬을 하라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 말의 가능성을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본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어쩌면 성인들의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성인 역시 우리와 같은 범부에서부터 인생을 배우고 시작한 사람들이다. 날 때부터 훌륭한 성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인들의 일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라고 성인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말이다. 성인은 탄생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있고 또 못난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얼굴이나 재산, 혹은 감정에 치우친 글 쓰는데 있지는 않다. 그 차이는 잘난 사람은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진다는 것이고 못난 사람은 하나의 선택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 자신을 욕할 때 자기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욕 하나만 선택해 응수하게 되면 그는 스스로 자멸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뭇 사람의 지탄을 받은 못난 사람이고 욕 대신 칭찬을 선택해 응수하게 되면 그는 뭇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욕하나만 선택한 사람에게는 싸움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돌아오지만 욕 대신 칭찬을 선택한 사람은 참회와 용서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나게 된다.

사람은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더 많이 성장하면서 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불처럼 들끓는 마음을 보고 있으면 괴로움을 알게 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누군가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예기치 않는 생이사별의 순간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하고 말이다. 그렇게 한마디 말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 인생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자주 어려운 순간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 인생이기도 하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이것이 아니더라도 선택할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자. 그때 우리 모두가 자기 성찰을 먼저 할 때 비로소 잘난 사람이 될 것이다.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金 相 容

알림

세간에 족보를 빙자한 사기꾼이 전국적으로 난무하니 종친들은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사기꾼들이 접근(전화 혹은 서신)하면 즉시 중앙종친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el 02-400-2501, 2502

순천김씨중앙종친회

시조부군에 관한 고문헌 기록에 관하여 (下)

다 아는 바와 같이 성(城)과 황(隍)자는 공히 한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시설을 가리키기도 하는 글자이며 따라서 성황신신앙(城隍神信仰)은 한 지역을 수호하고저 하는 신앙으로 그 옛날 中국의 육조시대(六朝時代)부터 있어 왔고 唐과 宋대에 성행하였다 한다. 우리나라에는 그 신앙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대 朴宗基교수가 쓴 "五百年고려사"등 서책에 보면 高麗시대에 성행하여 각 고을마다 성황사(城隍祠)가 있었고 金富軾이 妙淸의 亂을 토벌하러 갈 때와 李奎報가 慶州의 농민반란을 진압하러 갈 때도 여러 고장의 성황사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성황 신앙을 高麗조에서는 중요시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다가 高麗후기이후 유교(儒敎)의 영향으로 점차 경시되고 朝鮮조에 들어 유가의 성리학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성황신신앙은 무속신앙으로 변질되어 그 명칭마저 "서낭"으로 변하여 민간에서만 행해지게 되고 사당이 아닌 마을 어귀와 산고개 등에 있는 큰 나무에 서낭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公을 麗 · 順지역의 성황신으로 모신 성황사(城隍祠)에서는 朝鮮조말까지 관에서 그것도 유생을 보내어 제향케 하였으니 관심사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公의 사적에 관한 전거할 만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인데 모 대학교수께서 성황신 金摠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논문까지 펴내셨으니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회가 있어 그 논문(金摠의 城隍神推仰과 麗水 · 順天)을 배독할 수 있었는데 논문중의 다른 부분은 무어라 논하기 어려우나 "高麗 忠定王 2년(1350)에 公의 후손인 휘 惟精과 휘 承霍가 당시 권세가 있어 公을 성황신(城隍神)으로 추앙케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득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소견을 좀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公의 후손이신 휘 惟精(麗山君)께서는 위의 忠定王대보다 20여년후인 高麗말기에 平安道정주목사를 지내셨고 또한 그의 묘가 서울근방에 있었으니 麗 · 順지방에 거주하지도 않으셨으며 千리밖의 한 고을 수령쯤이 어찌 옛 고향일에 까지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그 분의 子이신 휘 承霍(襄景公)께서는 1347년생으로 당 3~4세 어린이였고 또 소시부터 성리학에 전심하였으며 50년 후인 1396년에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즉 권세 운운 할 수 있는 병조판서에 올으셨으며 이분 역시 고향이 아닌 기내(畿內)에 거주하였었으니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권세를 가진 조상이 麗 · 順지방에 안 계셨었다. 이러한데 어찌 그곳에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 권세 있는 후손들이 시조이신 公을 이 지역의 성황신으로 추앙케 하였다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襄景公의 후손 몇몇 분이 安東, 醴泉, 保寧, 海南 등지로 낙향하셨으니 부조(父祖)께서 권세를 누리며 편히 살라고 조성해 놓은 본향(本鄕)이라면 그 곳으로 낙향하셨을 터인데 어찌하여 생소한 다른 지방으로 落鄕하여 고난의 생을 사셨겠는가. 위 두 분께서 권세가 있어 公을 성황신으로 추앙케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일개가문의 권세로 설치된 사당(祠堂)을 朝鮮조내내 관에서 유지하며 제향까지 지낼 수 있었겠는가.

성황신(城隍神)으로 추앙받으신 公에 관하여 얼마 전에 본보에 간략하게 실은 일이 있지만 다시한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해 보겠다. 다음 표는 李弘稙박사편 국사대사전에 실린 연대표에서 발췌한 것으로 그 무렵의 그곳 정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國史大辭典에서)

846 (文聖王 8)	○ 봄. 靑海鎭大使張弓福청해진에서 叛함, 武州人 閻長이 弓福을 죽임.
851 (文聖王 13)	○ 2월 靑海鎭을 없애고 그곳 사람들을 碧骨郡에 옮김.
855 (文聖王 17)	○ 1월 관원을 파견하여 西南州郡의 百姓을 按撫함.
859 (憲安王 3)	○ 4월 堤防을 수리하고 농업을 장려함.

위와 같이 4~5년 간격을 두고 西南지역 정황의 변화가 있었다. 그 옛날 東 · 西양을 막론하고 해적들의 발호가 심하였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우리나라에는 특히 西南지방에 심하여 新羅興德王대에 張保皐 (張弓福)의 상주(上奏)로 莞島에 청해진(靑海鎭)을 설치하고 張保皐를 진대사(鎭大使)로 삼아 西南해역의 해로를 봉제하게 하여 그후 10여년간 어느 정도 안정 되었었겠지. 張保皐의 딸 王妃約束의 무산으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張保皐가 846년 모반하여 閻長에게 피살되고 말았으니 張保皐 없는 청해진의 방비력은 이완되고 따라서 해적의 침입이 다시 심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민생은 어려워지고 그곳에서 민란(民亂)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851년에는 청해진을 아예 철폐하고 그곳 주민들을 해적의 침탈을 피하기 위해 내륙인 碧骨郡(金堤郡)으로 이주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자 해적들은 해안지역 깊숙이 침노하게 되고 국내 도적떼에 시달리던 百姓들의 고난이 가중하게 되어 각지에서 소요(騷擾)가 자주 발생하니 조정에서는 855년에 관원을 보내어 외구(外寇)에 대한 방위책을 강화하는 등 하여 안무(按撫)하기에 일으렀을 것이다.

公의 생존연대로 보아 그 무렵에 무장(武將)이신 公이 파견되어 그곳의 방수군을 이끌고 지역방위에 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公이 고종할 때까지 麗 · 順지역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자행하는 도적떼와 해적떼를 소탕하고 덕을 베풀어 민생을 편케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따랐을 것이며 公사후에 백성들이 公을 추모코저 초상(肖像)을 그려서 進禮山에 모시게 되고 사후에 이 지방수호신인 城隍神으로 받들게 되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인 것이다.

그러면 麗水進禮山의 城隍祠는 어느 시기에 설치되었을까요. 상게한 "五百年 고려사"에 보면 百濟의 義慈王 20년(660) 羅 · 唐연합군이 百濟를 침공할 때 唐나라의 蘇定方이 대군을 이끌고 서해안으로 상륙하여 禮山지방으로 들어와서 대총관으로 활약한 일이 있어서 蘇定方을 그 地方의 城隍神으로 모신일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弓裔의 태봉국(泰封國) 관제에는 城隍堂등을 보수하는 "장선부(障繕府)"라는 부서도 있었다 하니 新羅후기에 이미 성황신앙이 행해졌었다 할 수 있고, 특히 그 무렵에는 羅 · 唐간의 교류가 성행하였으니 唐나라에서의 성황신앙정보가 麗 · 順지방에 아니 들어왔겠는가. 그리고 우리 보첩에 보면 민심을 중시한 高麗太祖가 그 사당을 안관사(安官祠)라 사액(賜額)하고 每年 향사케 하였다 하였으니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진례산의 城隍祠는 高麗 忠定王代가 아닌 新羅말엽에 이미 설치되었으리라고 추측되는 것이다.

18世紀 末葉 이 地方의 향유(鄕儒) 趙顯範이쓴 "강남악부(江南樂府)"에 실린 詩한편을 보면

"金別駕英雄 人生不得君平陽 死則爲城隍神 神之陰德堪傳後

世 世文武多賢臣 君不見 進禮山高長不崩 至今享祠秋與春"이라 하였으니

즉 "金摠은 영웅이었고 생시에는 平陽(順天)의 군장(君長)이 못 되었지만 죽어서는 城隍神이 되었다네. 그의 음덕 끊이지 않고 후세에 전하여져 대대로 문무현신이 많이 나왔지 그대들은 아니 보았는가. 進禮山은 우뚝 솟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사당에서는 봄 · 가을 제사를 지낸다오." 라고 하였으니 이 시문이야 말로 公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바르게 표현한 글이라 하겠다. 이 고장 고로(古老)들 간에는 오늘날에도 公을 가르켜 흔히 金將軍이라 존칭 한다고 들은 바도 있다.

저지난해 언제인가 順天市 生木洞으로 이전 되었던 公의 사당자리를 답사코저 順天市 문화원의 陳仁浩 부원장님의 안내로 간일이 있었는데 마을 노인정의 차모노인의 말씀을 들으니 선대 어른들의 말씀이 "왜병(倭兵)들이 사당으로 마구 들어가서 영정들을 칼로 마구 찌르는 등 행패가 심했었다." 고 들었다며 그 사당을 흔히들 "삼왕당(三隍堂?)이라고도 하였다는 것이었다. 우리 보첩에 "후일 朴蘭鳳 장군과 李舜臣 장군을 추배하였다." 하였으니 그곳 사당에서는 삼위(三位)를 합사하였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어찌하여 麗水의 進禮山에서 언제 그곳 順天으로 사당이 이전되었는지 또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정초 즉 경술국치(庚戌國恥) 三년후인 甲寅(1914)년에 우리 선인들께서 사당이 훼철된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가서 "城隍神 金摠"이라고 편기된 公의 影幀(鑑定結果 18세기경 개작된 것으로 추정)만을 모시고 公의 분암(墳庵)인 同源齋로 이안 하였다가 영당을 신축하고 현재 그곳에 봉안하고 있으며 본 全羅南道 地方 文化財 第27號로 지정되어 있다.

이상 주언 부언 이야기 하였지만 위 두 文獻(前 제52호의 新增東國輿地勝覽과 增補文獻備考)의 公에 관한 기록의 약술(略述)은 公의 사적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술된 것 같이 생각되고 한편은 甄萱의 또한 편은 弓裔의 弓爾別監이라고 하여 서로 상충되며 城隍神으로 추앙한 일과 公의 생존연대 등으로 밀우어 볼 때 甄萱이나 弓裔의 弓爾別監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당초에 城隍神으로 추앙한 일은 公 휘하에 내외의 적도(賊徒)들을 소탕하고 덕을 베풀으셔서 어려웠던 민생을 안정케 한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후손된 우리는 公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로 세간에서 區區하게 거론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줄인다.

2007年 8月 日

38세손 明在 근지

김봉배 교수

姓氏의 由來와 宗親會의 使命

❀ 성씨의 유래

성씨의 유래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상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략 중국의 성씨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고조선(古朝鮮)시대에 왕족(王族)에서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뿌리찾기 운동본부의 기록에서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성씨연합회 기관지에서 고구려(高麗) 왕실에서 부터 그 시원(始原)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고대(古代) 씨족사회(氏族社會)로 접어들면서 그 집단(集團)을 통솔하는 지배자가 통솔에 필요한 정치적 기능을 부여함에 있어서 다른 부족(部族)과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 성씨로 나타났고 또한 정치적 신분을 표시하는 중요한 의미로서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은 초기 왕실이나 귀족사회에서만 국한 되어 사용하다가 국가에 큰 공신(功臣)들이나 귀화인(歸化人)들에게 살고 있는 고장이나 강, 혹은 산의 명칭을 따라 성을 내려 주면서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성씨 사용은 과거제도(科擧制度 고등고시)가 발달되면서 고려 문종 서기 1047년 이후에서부터 보편화되었고 상민(常民)과 노비(奴婢)를 포함한 모두가 성을 같게 된것은 조선말 개혁 정치가 시행되면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좀더 성씨의 득성과정(得姓過程)을 살펴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 17대 인종(仁宗)의 명을 받들어 김부식(金富軾)이 편찬한 역사책으로 후세에 전한 우리나라 최고의 사서(史書) 50권 10책 제13권, 고구려 본기1에 고구려시조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고(高)씨를 자기성으로 하였다고했고 건국공신인 재사(再思)에게는 극(克)씨를 무골(武骨)에게는 중실(仲室)씨를 묵거(默居)에게는 산실(山室)을 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23권 백제 본기1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溫祖)가 부여 계통에서 나왔다고 하여 부여씨로 하였고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는 기원전 57년경 양산 기슭에 나정(蘿井)옆에 있는 숲속에서 표주박 같은 커다란 알에서 탄생했다고 하여 표주박 박(朴)씨를 성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시간에 배우신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씨의 유사(遺事 후세에 전하는 사적)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신라 고사에서 이르기를 탈해왕 9년에 시림(始林)의 숲속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아주 복스럽고 길한 조짐이 드리우고 흰 닭이 우는데다가 나무 가지에는 황금색 궤가 매달려 있어서 왕이 직접 가서 그 궤를 열어보니 옥동자가 그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기뻐 그 아이를 거두어 아들을 삼고 이름을 알지(閼智)라고 금궤에서 나왔다고 하여 성을 김(金)이라 하였답니다.

다른 성씨가 생긴 재미있는 설화(說話)가 많이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1975년에 조사 발표한 성씨 분포를 보면 성씨가 249개 였고 그 중에 김씨가 21.9%이고 이씨가 14.9%, 박씨가 8.5%, 최씨가 4.8%로 4대성이 총인구의 반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밖에 160개 성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나라 총인구의 1%에도 못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군중속에 돌을 던지면 김씨나 이씨나 박씨가 맞는다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알지 할아버지 후손도 80여파 김씨로 나누이고 관향(貫鄕)은600여개나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을 가질듯해서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김씨의 시조인 알지 할아버지도 초자연적인 탄생기록을 볼 수 있었고 타성의 시조도 연원(淵原)을 보면 비슷한 기록이 있고, 우리민족의 시조인 단군도 하느님인 환인(桓因)의 서자 환웅(桓雄)이 태백산에 내려와 천왕(天王)이 되어 나라를 열고 곰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왕검(王儉)이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조선이라 했지 않습니까.

말이 좀 빗나가지만 세계 많은 인류가 신봉하는 예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케하여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신화라고도 하고 별의별 논란이 오래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석가무니는 탄생의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지요. 다만 어떻게 태어났건 범인과는 다르게 초자연적인 위대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나아가서는 신격화(神格化)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저 하는데서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들로서는 그런 사실(史實)을 부인할 사료(史料)가 없는한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우리 조상이나 성현들의 귀중한 사상과 교훈을 요긴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현해보고저 노력하는 태도가 진취적이고 옳은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봅니다.

❀ 순천김씨의 연원(淵源)

순천김씨를 비롯해서 번성한 김씨는 신라와 근대(近代)를 잇는 역사적인 사건속에 김씨들의 입김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현대에 와서도 조국의 발전과 가문의 번영을 의해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순천김씨의 본관(本貫)은 여러분께서 족보를 통해서나 어르신들에게 전해들어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시조인 김총(金摠) 할아버지께서 신라의 경순왕의 손으로서 알지 할아버지의 자손 중 선산, 의성, 언양, 율산, 나주, 안노, 연안, 순천 김씨 순으로 신라의 헌안왕(憲安王) 때 순천에 인가 벌감(仁駕別監)으로 지내시다 세상을 마치셨고 이곳에 모셨기 때문에 본관을 순천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註 仁駕別監은 관청의 장에 속함)

성의 본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본은 밑본 나무로 하면 믿동 영어로는 Root, Origin 근본이란 뜻이고 관(貫)은 뚫음관 궤일관이라고도 하지만 명적관 이름을 열기(列記)하는 명적관이 옳은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순천(順天)은 지명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순(順)자는 흔히는 순할 순자로 해석되지만 사전을 유심히 보면 차례순, 기뻐할 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하면 하늘아래 기쁘고 질서와 예절이 있는 안정된 고장이란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본관을 가졌으니 몸과 마음이 평안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고장을 본관으로 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순천김씨 가문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윤인(允仁)이란 분은 전개서령(典開西令 외무관직)을 지냈고 승주(承宙)란분은 고려에서 협조전서와 군사를 거느리는 병마절제사등을 역임했고 조선의 태종때는 공조판서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계실 명신(名臣) 김종서(宗瑞)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1405년 18세 때 문과 과거에 급제한 후 최고직인 우의정(右議政)과 좌의정(左議政 국무총리격)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453년에 어린 단종의 왕위를 노리는 수양대군(首陽大君)에 의해 희생된것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후손들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종친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오신 중앙회장 김종식 회장님과 임원, 실무자 여러분 또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도 알게 모르게 헌신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올리면서 자세히 조사해서 치하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여깁니다. 끝으로 우리 종친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집성촌의 분표를 보면 경기도 고양군 벌제면 내유리, 개풍군 청교면 유능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와 방춘리, 해남군 산이면 구선리, 경북 안동군 풍천면 구담동, 문경군 가은읍 작천리, 평남 순천군 선소면 남포리, 평북 곽산군 안흥면 호현동 고령촌 등인데 이북에는 조사되지 못한 집성촌의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인구수는 수만에 이를것으로 추산할 뿐 자세히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 종친회의 사명

지금까지 순천김씨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시간상 줄여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종친회가 어떤 일을 해서 국가발전과 종친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도 종친회에 참여해서 대를 이어갈 것을 전재하고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도 우리회의 미래를 위해 대학생 여러분을 모시고 강좌를 개최한 것은 바람직한 행사의 하나입니다만은 좀 더 확대해서 실시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 소망 같아서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께서 현재는 고생중이어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 더 미래를 위한 세계적인 안목에서 국가와 그룹의 발전을 위하고 저의 종친회 발전까지를 포함해서 일본의 유명한 마쯔시다 전기의 마쯔시다 고노스께(松下幸之助, 작고) 회장께서 1979년에 설립 경영해 오면서 정·재계와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양성 배출함으로서 크게 공헌하는 마쯔시다 정경숙(松下政經塾)같은 것을 참고해서 설립운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중에 알고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마쯔시다 정경숙은 대학출신으로 우수한 자들은 선발해서 2년에서 4년 기숙사에서 학비, 생활비 전액을 부담하고 교육 후 사회에 내보냅니다.

그 이념(理念)을 보면 진심에서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고 정치경영의 이념을 탐구하고 인류의 번영행복과 세계평화에 공헌한다고 이고 교육과정(curriculum)은 인간관, 국가관, 역사관, 일본의 전통정신, 정치이념, 경영이념, 소지연구(素志硏究) 등입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250여명의 활동분포를 보면 과반수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인데 그 중에 40대인 마에바라 세이지(前原誠司)는개혁적인 인물로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당수를 지낸일도 있습니다. 그밖에 30%가 실업계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20%가 대학교수와 언론계에서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속의 일본을 변화시켜가는 교육운동이기 때문에 내용을 줄여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둘째, 어느 종친회이건 일반적인 인식이나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가한 노

감상문

제22회 대학생 하계교양강좌를 수료하고

김보람 (우송정보대-충북 청주시 흥덕구)

하계교양강좌를 마치고...

이번 교양강좌로 나의 뿌리를 알 수 있었다. 그 전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정확한 파도, 몇 대손인지도 모르고 지내왔던 내가 부끄러웠다. 솔직히 여자가 종친회 교육에 온다는 건 어려웠다. 그만큼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내 의지가 필요했다.

몇년전에 교육에 다녀간 사촌 오빠들의 권유로 참가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많은걸 배워갈 수 있었다. 4시간동안 흘로 기차를 타고 오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기차 밖의 풍경에 잠겨 다녀와서의 다짐과 각오를 되새기며 도착했다.

처음으로 시조 할아버지에게 절을 올렸고 발끝부터 온몸으로 흐르는 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업적을 들으면서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족보 찾는 법을 배워 족보에 나온 내 이름을 직접 찾을 수 있었다.

그 책자 속에 그 많은 내용이 적혀 있다는게 놀라웠고 그 속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처음 보는 서예행위 예술을 보았고 감명 깊은 시를 들을 수 있었으며 교육생들과의 끈끈한 애정을 느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어색하고 말 한마디 못 부쳤는데..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게 자랑스러웠다.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들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 후세를 생각해 주시는 애틋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 분들 한분 한분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 비록 짧은 2박3일이었지만 내 생각과 마음가짐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잊지 못한 추억을 만들고 간다. 감사합니다

김광석 (고려대-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학생 종친회 모임에 참가해 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이때까지 말로만 듣던 종친회 모임.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았다. 비록 같은 핏줄의 사람이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접하기 힘들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설렘 반 두려움반의 심정으로 처음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순천역에 내렸다. 거기서 만난 같은 뿌리의 사람들. 같은 핏줄인 것을 의식하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왠지 모르는 어색함이 나를 압도했다.

이곳에 처음 와서 본 것은 5×35(m)의 천에 '종족화목 여행'이라고 큼지막하게 붓글씨로 쓰는 것으로, 순천 김가의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쏟아지는 기립박수에 나도 모르게 흥이 났고 나도 모르게 순천 김가의 본질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김수연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즐겁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다. 책의 소중함. 이와 연결시켜 뿌리 찾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 제가 강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개인적인 바램은 강연을 하실 때 살아가는 지혜와 관련지어 족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것이다. 족보나 기타 전통문화는 솔직해 대학생들과는 괴리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이야기가 조금만 지속되어도 지루하고 졸음이 올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대학생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연을 하실 때 (인생의 선배로서)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깨달은 부분이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신다면 보다 재미있고 대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김동우 (광운대-경기도 용인시)

8월2일 태어나서 한번도 와보지 못하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나의 시조이신 김총 할아버지의 묘 바로 우리 순천김씨의 성지 순천에 오게 되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본관이 어디인지 어디 성씨인지를 묻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성씨와 본관이 존재하지만 "나" 즉 순천김씨 나 외엔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성씨였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고 나의 시조는 정확히 누구시며 본관이 어디이고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였다. 그러던 참에 우리 가문에서 나와 같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계교양강좌 교육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나에겐 좋은 기회다 생각되어 참석하게 되었다.

첫날 서울에서 멀리 순천까지 5시간에 걸쳐 달려왔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먼저 와있는 우리 종친과 인사를 하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다. 처음엔 많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금방 친해지고 마음이 편해졌다. 바로 우리는 그런 만남을 뒤로한 채 입소식을 하고 바로 우리의 시조이신 김총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올라갔다.

평소 제사지낼 때처럼 절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와는 달리 신발도 벗고, 안경까지 벗으면서 절을 해야한다고 일러주셔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예를 갖췄다. 내려오자마자 우리 종친이신 석호 김동영님께서 서예 행위예술을 시연해주셨는데, 정말 멋있었다. 그 뒤 저녁식사 후 우리 가문 어르신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어르신들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가슴에 와 닿게 일러주셨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효에 관한 이야기에 평소 나는 효가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만이 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런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효라는 사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근본적이고 고귀한 것이었다. 효란 '사회의 질서이며, 나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고 나를 사랑함이 곧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 정말 기쁘고 우리 종친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가르침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좀더 헌신하고 우리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자손인지 알게 되어 보람되고 자신감이 생겨 정말 기뻤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들이나 모여서 노는 곳으로 인정되기 쉽지만 우리 종친회로서는 해마다 대학생 강좌도 열고 각 지방에 분포된 종친회가 있어서 사회참여가 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공헌한다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주민 소환법이 제정 국회에서 금년에 통과했기 때문에 감시단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들이 시정에 소홀한 점, 부정한 행위 등을 감시 방지한다면 매우 보람 있는 사회참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집성촌을 이룬 종친회는 용의하게 단합해서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중앙종친회이건 지방종친회이건 월례회 모임에서는 친목도 좋지만 무엇이던 배우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 참여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로타리클럽이나 그밖에 봉사단체에서 보면 모일 때마다 회원 중에서나 외부 강사를 모시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봉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가능한한 변모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넷째, 전국의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사회 이외에 종친중에 대학교수나 기관단체에 계시는 분이나 단체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유지분들을 여구위원으로 위촉해서 1년에 한두번씩 모여 종친회 발전을 위한 사업등을 토론 방책을 입안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여깁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양보가 없이 일등만하라는 교육풍토, 퇴폐적인 대중문화가 판을 치는 사회, 기초생활 질서가 엉망인 대중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개발해 지도해가야 종친회 존립의 의미가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종친회간에 유일한 매개물인 순천김씨 종보도 지금까지 편집발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지만 좀더 노력해서 회원들이 기다려지는 종보가 되기 위해 전국 종친회원중에 편집위원 등을 위촉해서 읽고 싶은 기사가 많아지고 회원들의 삶에 지침서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종친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서 청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3일
부산종친회 김 봉 배 드림

聞慶宗親會 第27會 定期總會

순천김씨 문경종친회 제27회 정기총회를 2007. 5. 26 11:00 문경시 흥덕동 황제웨딩에서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안동 상주 등 원근 각 지역에서 참석한 종친과 함께 1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

문경종친회장(東哲)은 인사말에서 멀리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종친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는 한 뿌리로서 종친 간에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이해하여 더욱 발전하는 종친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행운권 추첨으로 TV등 100여점의 경품을 증정하였고, 노래자랑으로 푸짐한 상품을 수여하여 흥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聞慶宗親會 會 長 김동석(金東哲)
副會長 김승연(金承淵)
副會長 김만의(金萬熙)
總 務 김길영(金吉永)
財 務 김창환(金昌煥)

http://www.schkim.co.kr

宗親친목행사

2007년 6월 26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강정가든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에서 회장님을 대신하여 상용부회장, 동석문경종친회장, 철우 안동종친회장, 명친 회원 그리고 이곳 구담 및 인근의 종친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었다.

종식회장 30만원, 이날 부득이 참석은 못하였지만 강원 평창에 거주하는 영남종친 30만원, 참의공파회장 수연 종친 30만원을 희사함으로써 오늘의 음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날 수연 종친이 국답공조 묘역 반환즉석 모금에서 150만원의 금액이 조성되었고, 앞으로도 종친 간 이런 모임은 많을수록 좋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푸짐한 음식 속에 무척이나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종친간 안부를 물으면서 크고 작은 종사를 논의하면서 매우 뜻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다. 종파를 초월한 이런 모임은 앞으로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고, 종친 간 친목은 이렇게 얼굴을 맞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교훈을 남긴 하루였다.

이날 영남 종친회장에 추대되니 동훈 종친이 참석해 더욱 뜻있는 하루였고, 상주에서 재남씨를 비롯, 달홍 대구에서 종용종친이, 늑전에서 석윤씨 등 원로들이 참석하심으로 더욱 뜻있는 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動 靜

김동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

1948년 6월 13일 기흥구 언남동에서 출생하여 구성초등학교와 수원북중학교, 수원농림고등학교를 수학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주요경력으로는

1968년 12월 20일 용인군 수지면에서 공직 시작.

군청 새마을과, 도시과, 회계과, 세무과 등에서 여러 직무를 수행

1996년 사무관으로 승진

용인시청 시세과장, 구성읍장, 사회복지과장, 재난안전과장을 역임.

2006년 서기관으로 승진 경제환경국장을 역임

경전철 역사와 재래시장간의 연결통로 확보로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하였으며,

분당선 연장(오리~수원)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 서남부 도시 전철망 연계 수송체계를 구축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

특히, 지난 4월 [용인 봄꽃 축제 2007] 개최를 통해 전국 각지 관람객 8만여명 입장이라는 성공적 개최 성과를 거두어 자연관광도시 용인을 전국에 알리는데도 이바지하는 등 탁월한 역량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공로가 인정되어 2007. 6. 8 제3대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 부임

가족으로는 이재일 여사와의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음

두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7월 7일 김수연(회장) 장남 성준군 - 평창 푸른 숲에서 결혼식

♡ 8월 25일 김창연(고문) 손주 - 석남로 서울 결혼의 전당에서 결혼식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7년 5월 1일부터 ~ 2007년 8월 30일까지

부회장

1. 김철준 2007. 5.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 사

1. 김기연 2007. 6. 1 충청북도 청주시
2. 김강영 2007. 6. 7 경상북도 문경시
3. 김동학 2007. 6. 15 경기도 고양시
4. 김서연 2007. 6. 15 경기도 고양시
5. 김동욱 2007. 5. 15 경기도 고양시
6. 김상응 2007. 6. 15 경기도 고양시
7. 김상윤 2007. 6. 14 전라남도 해남군
8. 김동준 2007. 7. 16 충청남도 천안시
9. 김상우 2007. 7.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10. 김규일 2007. 7. 2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의원

1. 김현희 2007. 5. 31 전라남도 해남
2. 김상율 2007. 6. 12 서울특별시 광동구
3. 김석연 2007. 6. 12 경기도 안산시
4. 김어연 2007. 6. 15 경기도 고양시
5. 김애연 2007. 6. 15 경기도 고양시
6. 김동원 2007. 6. 15 경기도 파주시
7. 김동선 2007. 6. 15 경기도 고양시
8. 김동희 2007. 6. 15 경기도 고양시
9. 김한경 2007. 6. 18 전라남도 해남
10. 김성환 2007. 6. 20 경상북도 영천시
11. 김동원 2007. 6.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12. 김유환 2007. 7. 2 충청남도 부여군
13. 김완선 2007. 7. 23 경기도 고양시

운영위원

1. 김동영 2007. 6. 4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 문

1. 김채원 2007. 6.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 원

1. 김동경 2007. 4. 30 인천광역시 동구
2. 김일재 2007. 4. 30 경기도 이천시
3. 김규장 2007. 5.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4. 김휘천 2007. 5. 11 서울특별시 권선구
5. 김천수 2007. 5. 18 경기도 구리시
6. 김시현 2007. 5. 29 울산광역시 남구
7. 김홍연 2007. 6. 1 경기도 성남시
8. 김만형 2007. 5.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김재수 2007. 5. 31 전라북도 전주시
10. 김동식 2007. 6. 1 서울특별시 광진구
11. 김순수 2007. 6. 1 서울특별시 성북구
12. 김상범 2007. 6. 1 인천광역시 부평구
13. 김석연 2007. 6. 1 인천광역시 연수구
14. 김영열 2007. 6. 1 강원도 횡성군
15. 김양춘 2007. 6. 1 부산광역시 남구
16. 김진추 2007. 6. 1 전라남도 광주시
17. 김기현 2007. 6. 1 광주광역시 북구
18. 김인흠 2007. 6. 1 경상북도 영주시
19. 김명 2007. 6. 4 경기도 양주군
20. 김한연 2007. 6.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1. 김웅열 2007. 6. 4 서울특별시 성동구
22. 김종돈 2007. 6. 4 경기도 시흥시
23. 김동원 2007. 6. 4 서울특별시 도봉구
24. 김덕흠 2007. 6. 4 경기도 의정부시
25. 김연수 2007. 6.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6. 김윤근 2007. 6. 4 충청남도 예산군
27. 김지연 2007. 6. 4 경상북도 안동시
28. 김인영 2007. 6. 5 서울특별시 도봉구
29. 김상일 2007. 6. 5 경기도 고양시
30. 김형호 2007. 6. 5 경기도 안산시
31. 김세환 2007. 6. 4 충청남도 보령시
32. 김용학 2007. 6. 4 울산광역시 중구
33. 김택수 2007. 6. 1 전라북도 임실군
34. 김방헌 2007. 6. 1 경상북도 안동시
35. 김태석 2007. 6. 4 충청남도 보령시
36. 김종두 2007. 6. 4 전라남도 여수시
37. 김동신 2007. 6. 5 경기도 용인시
38. 김승희 2007. 6. 7 서울특별시 성북구
39. 김상학 2007. 6. 7 경기도 용인시
40. 김학수 2007. 6. 4 경상북도 문경시
41. 김인희 2007. 6. 7 서울특별시 강서구
42. 김귀원 2007. 6. 4 전라남도 담양군
43. 김명환 2007. 6. 4 충청남도 부여군
44. 김광연 2007. 6. 5 충청북도 영동군
45. 김한희 2007. 6. 7 경상북도 과천시
46. 김성환 2007. 6.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7. 김귀영 2007. 6. 7 전라북도 전주시
48. 김종탁 2007. 6. 8 서울특별시 마포구
49. 김동찬 2007. 6. 8 서울특별시 마포구
50. 김명환 2007. 6. 8 서울특별시 강서구
51. 김종권 2007. 6. 8 경기도 김포시
52. 김동인 2007. 6. 5 경상북도 문경시
53. 김만조 2007. 6. 7 대구광역시 서구
54. 김태연 2007. 6. 8 경기도 용인시
55. 김종하 2007. 6. 8 서울특별시 구로구
56. 김봉원 2007. 6. 8 대구광역시 달서구
57. 김영일 2007. 6. 8 전라북도 정읍시
58. 김봉희 2007. 6. 11 전라남도 해남군
59. 김계연 2007. 6. 11 경상북도 영주시
60. 김종건 2007. 6. 12 경기도 광명시
61. 김창렬 2007. 6. 11 경기도 용인시
62. 김좌섭 2007. 6. 8 경상북도 봉화군
63. 김철수 2007. 6.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64. 김상돈 2007. 6. 13 경기도 파주시
65. 김윤수 2007. 6. 14 경기도 파주시
66. 김봉래 2007. 6. 15 강원도 정선군
67. 김동철 2007. 6. 15 대구광역시 북구
68. 김안석 2007. 6. 15 전라남도 해남시
69. 김동기 2007. 6.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0. 김현국 2007. 6. 18 서울특별시 방배동
71. 김동현 2007. 6. 18 경기도 시흥시
72. 김상기 2007. 6. 14 충청남도 서천군
73. 김광순 2007. 6. 18 전라남도 여수시
74. 김상진 2007. 6.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75. 김규찬 2007. 6. 18 경상북도 안동시
76. 김한용 2007. 6. 21 경기도 수원시
77. 김동언 2007. 6. 19 전라북도 임실군
78. 김일국 2007. 6. 20 전라남도 구례군
79. 김원석 2007. 6. 21 광주광역시 북구
80. 김동직 2007. 6.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81. 김병수 2007. 6. 21 전라남도 구례군
82. 김천환 2007. 6. 22 대구광역시 북구
83. 김동수 2007. 6. 22 경상북도 안동시
84. 김 진 2007. 6. 22 대구광역시 북구
85. 김동삼 2007. 6. 25 경기도 하남시
86. 김정희 2007. 6.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87. 김정희 2007. 6. 25 충청북도 청주시
88. 김승환 2007. 6. 21 경상북도 상주시
89. 김동규 2007. 6.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90. 김상천 2007. 6. 22 경기도 안성시
91. 김동석 2007. 6. 22 경상북도 성주군
92. 김왕희 2007. 6. 25 울산광역시 남구
93. 김영일 2007. 6. 26 서울특별시 도봉구
94. 김상휴 2007. 6. 26 경기도 안양시
95. 김학이 2007. 6. 22 경상북도 의성군
96. 김인성 2007. 6. 26 경기도 의정부시
97. 김홍연 2007. 6. 26 울산광역시 남구
98. 김옥계 2007. 6. 25 경상남도 하동군
99. 김기남 2007. 6. 28 인천광역시 서구
100. 김준섭 2007. 6.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101. 김지호 2007. 6.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102. 김동한 2007. 6. 29 경기도 용인시
103. 김병열 2007. 6. 29 경기도 이천시
104. 김동옥 2007. 6. 29 부산광역시 연제구
105. 김춘보(동보) 2007. 6. 29 경상남도 경주시
106. 김홍진 2007. 6. 29 경상북도 영주시
107. 김천연 2007. 6. 29 울산광역시 중구
108. 김욱남 2007. 7. 2 경기도 고양시
109. 김세연 2007. 6. 29 경기도 이천시
110. 김성일 2007. 6. 29 경기도 군포
111. 김철환 2007. 7. 2 인천광역시 강화군
112. 김동근 2007. 7. 2 경기도 시흥시
113. 김선균 2007. 7. 3 강원도 춘천
114. 김창환 2007. 7.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15. 김세희 2007. 7. 9 인천광역시 남구
116. 김동한 2007. 7. 6 경기도 용인시
117. 김완수 2007. 7. 10 경기도 고양시
118. 김영환 2007. 7.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119. 김상균 2007. 7. 10 경기도 남양주시
120. 김진오 2007. 7. 11 강원도 삼척시
121. 김승태 2007. 7. 10 경상북도 경주시
122. 김용욱 2007. 7. 18 전라북도 완주군
123. 김수영 2007. 7. 24 경기도 수원시
124. 김택수 2007. 7. 24 경상북도 구미시
125. 김길영 2007. 7.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126. 김원재 2007. 7.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127. 김동철 2007. 7. 25 충청북도 충주시
128. 김상식 2007. 7. 25 대구광역시 동구
129. 김대영 2007. 7. 24 경상북도 문경시
130. 김학주 2007. 7. 26 경기도 남양주시
131. 김상욱 2007. 7. 25 경상북도 영주시
132. 김주운 200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133. 김중식 2007. 7. 27 경기도 남양주시
134. 김희완 2007. 7. 30 대전광역시 서구
135. 김국영 2007. 7. 27 충청남도 금산군
136. 김병현 2007. 7. 27 전라남도 영암군
137. 김종구 2007. 7. 30 전라북도 전주시
138. 김정희 2007. 7.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139. 김이균 2007. 8. 1 서울특별시 서초구
140. 김강원 2007. 8. 2 전라북도 익산시
141. 김춘연 2007. 8. 6 경기도 양주시
142. 김영도 2007. 8. 14 경기도 안성시
143. 김종환 2007. 8. 17 경기도 안성시

무 명 인

1. 2007년 4월 27일 새마을금고/의왕지점
2. 2007년 6월 1일 농협/용인축한백암지점
3. 2007년 6월 4일 신한은행/만리동지점
4. 2007년 6월 4일 농협/강서기약대교역지점
5. 2007년 6월 5일 농협/인천군지부
6. 2007년 6월 7일 농협/대유지점
7. 2007년 6월 7일 농협/서안동지점
8. 2007년 6월 14일 농협/영등포당산역지점
9. 2007년 6월 15일 우체국/정읍신태인지점
10. 2007년 6월 18일 우리은행/방배동지점
11. 2007년 6월 29일 하나은행/구미지점
12. 2007년 7월 2일 우체국/광주대
13. 2007년 7월 11일 농협은행/간석지점
14. 2007년 7월 18일 농업협동/상주농협
15. 2007년 8월 21일 새마을금고/의왕지점

보험도 투자도 한 자리에서!
한화금융프라자에 오시면 가능합니다

대한생명, 한화증권, 한화손해보험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화금융네트워크만의 앞선 금융서비스. 이제, 한화금융프라자에서 만나보십시오.

한화금융네트워크 대한생명 / 한화증권 / 한화손해보험 / 한화투자신탁운용 / 한화기술금융